



어게인 1987

시민은 거리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고시 철폐! 즉각 재협상! 국민 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백만 촛불대행진

6월 10일 오후 7시 / 서울시청 앞 광장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www.antimadcow.org | 02-2138-1119)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인터뷰 3면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
6~8면



87년 6월 항쟁에서 배운다
4면



미친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
12면

유럽 금진짜파의 전진
9면



‘88만 원 세대’의 삶
- 알바에 질식당한 청춘
5면

시위 현장에서 온 독자편지들
11면

<맞불> 웹사이트를
http://www.counterfire.or.kr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한 정치인, 학자, 무슨 무슨 운동가, TV방송사 고위 간부, 전교조·민주노총 간부들이 값싸다고 뒷구멍에서 몰래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집에 들고 가지 않는자는 반드시 는 뜨고 지켜볼 일”

— 한 맺힌 <조선일보>

“국민 중엔 반역자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철부지도 있고, 선동에 속아 날뛰는 이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금치산자도 있다. 이들에게도 대통령이 행복해야 하는가?”

— 극우익 조갑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약자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절대 때리는 모습이 찍히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하시고”

— 전경들에게 ‘안 보이게 때리라’고 교육하는 경찰청 1기동대 간부

네티즌: “조중동에 광고하면 이가 다 빠져도 이가탄 안 먹을 것”

명언제작: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실지 않겠다. 이미 계약된 것도 철회하겠다”

— 조중동 광고 차단 운동의 성과

“아빠가 출근할 때 기름 값 / 엄마가 시장갈 때 미친 소 / 우리가 학교 가면 0교시 / 우리들의 수면시간 4시간 / 우리는 민주시민 촛불소녀들 / 미친 소 민영화 대운하 싫어”

— <뽀뽀뽀> 패러디 노래

“이 사기꾼(이명박)이 죽더라도 저 혼자 죽으면 되는데 ... 애국우파까지도 저승길 동행친구로 삼을까 보아 걱정입니다.”

— 조갑제닷컴의 한 기고자

“대통령 지지율 20퍼센트대? 좀 과장해 말하면, 조금이라도 제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국민들은 다 싫어한다는 얘기”

— 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

“요즘 같아선 장마가 열른 시작되라고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 ... 비소식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 경찰 관계자

미친 소 반입 저지에 나선 노동자들

“미친 소 수입을 우리가 막겠다”

6월 2일 부산 감만 부두 입구에 노동자 1천여 명이 미친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을 벌였다. 화물연대 대형버스가 감만 부두 진입로를 봉쇄하고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노동자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운수노동자뿐 아니라 공공, 금속, 보건 등 다양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결의

운수노조 산하 공항항만 운송 부산본부 이석재 조직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조합원들이 인터넷과 촛불집회에 많이 고무받았다. 부경협의회 조합원들은 컨테이너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쇠고기 운반 저지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또 항공부문 노동자들은 기내식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말 것을 단협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반



6월 2일 부산 감만 부두에서 열린 미친 쇠고기 반출 저지 촛불문화제

대 투쟁에 앞장서 왔다. 지금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금속노동자들이 다시 앞장서야 한다. 지금 금속노동자들이 일어나면 국민들의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창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왔다는 화물연대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창원에서] 고유가 때문에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차라리 차 세우고, 이명박의 미친 소 반출을 막기 위해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돈 버는 일이다.”

집회에서 발언한 화물연대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유가가 휘발유 값보다 올라 아침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다오면 3만 원이 남는다. 유지비 포함하면 장거리를 뛰지 않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나마 쇠고기 수입되면 3만 원 일거리지만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명박의 미친 소 수입을 막겠다. 미친 소 막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

화물연대 북부지회 조익렬 씨는 이렇게 말했다.

“경유가 인상으로 장거리를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요즘은 차라리 차를 세우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너도나도 말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운행은 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처럼 우리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물연대 지도부들도 촛불의 분노처럼,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적극 나섰으면 한다.”

인터뷰 · 정리 박수원

설 자리를 잃은 ‘다함께’ 마녀사냥

최미진

위기에 처한 이명박과 경찰은 ‘배후’설을 퍼뜨리며 시위대를 이간질하려 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우익 언론들은 특히 ‘다함께’가 발간하는 <맞불> 호외 내용과 확성기 사용을 보도하며 ‘보이지 않는 손’ 운운했다.

이런 공격에 힘입어 시위 대열의 일부도 다함께 마녀사냥에 동조했다. 이들 중에는 경찰 접좌도 섞여 있는 듯했다. 이들은 다함께를 공안당국에 신고하려 하고, 다함께가 ‘프락치’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5월 31일에 일부

사람들은 “반자본주의 단체 다함께는 비켜라”는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불순분자?

그러나 다행히 다수의 시민들은 반(反)다함께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반자본주의가 무엇이 문제냐?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다”,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하나?” 하고 항의했다. 다함께를 비방하던 무리는 공공노조와 학생 대열에서도 쫓겨났다.

좌파 마녀사냥과 반공 논리는 운동이 성장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배자들이 늘 써먹던 수법이였다. 전두환 군부정권과 <조선일보>는 1980년 광주항쟁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매도했고 광주는 고립됐다. 덕분에 군부는 항쟁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1987년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은 “[민주헌법정착국민]운동본부 주도세력의 구성원 상당수가 과거 국사범 전력에 있는 등 이 단체의 불순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하고 운동에 참가하는 좌파들을 마녀사냥했다.

19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정치적 식물인간이 된 김영삼 정부는 노동자 운동과 학생운동이 만나는 것을 막고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다함께 마녀사냥을 통해 좌파를 이 운동에서 고립시키고 시위대가 스스로 분열해 마침내 촛불이 꺼지기를 바랐다.

운동 참가자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토론할 문제다. 정부에 반대하는 다함께의 공공연한 주장이 불온시되고 배제된다면 그 다음 정부의 먹잇감은 촛불시위에 참가한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이 진정으로 물러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점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막가는 이명박의 언론 장악 시도

5월 29일 열린 YTN이사회에서 ‘MB맨’ 구본홍이 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이명박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다. 구본홍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언론 특보였고, 인수위 대변인실 자문위원이었다. YTN노조가 본관 회의실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이사회는 몰래 호텔로 장소를 옮겨 구본홍을 사장으로 내정했다.

KBS에서 이사로 선임돼 이사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유재천

은 방송 민영화를 지지하고, ‘신문 방송 겸업 허용’으로 방송의 ‘조중동화’를 부추기는 자다.

MB맨

또 방송사의 돈줄인 광고를 좌지우지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후보로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특보 단장 출신인 양희부가 선정됐다. 문화부 차관 신재민은 언론대책회의에서 인터

넷을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만들어 통제하려 한다.

문화부는 홍보지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절대 표 안 나가 유학과 연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요 기자와 PD, 작가, 행정직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야비한 의도를 드러냈다.

YTN노조는 7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홍의 사장 공



이명박의 언론 장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언론노동자들이 쥐고 있다

식 임명을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노조가 ‘방송통제위원회’ 최시중 퇴진을

위해 하기로 한 파업을 앞당긴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강철규

“정부는 몰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으로부터 이번 촛불 저항의 의미와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일시적 중단을 요청하는 건지, 영구적 중단을 요청하는 건지, 만약 미국이 거절하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애매한 문구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미국산 쇠고기 그 자체의 안정성이 월령을 불문하고 담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단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국민들의 불만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봉책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국민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지난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을 가지고 노는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조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봉책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이 정부가 기대한다면 스스로 몰락을 자

초하는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된 이 운동에 대해 평가해 보신다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운동 진영 내의 많은 사람들이 전망에 대해 굉장히 회의했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돌파해 준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는 반대하는데 한미FTA는 찬성한다는 모순된 의식에서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다 하는 인식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각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국민들이 각각의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죠.

그리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5월 6일 만들어져서 한 달 동안 투쟁을 함께 해 오면서 운동 내의 통일성, 연대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 행동의 변화 속도는 우리 운동 단체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점에서 우리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점을 경험하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이명박 정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기도 있는데요.

물론 사회운동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운동의 역할이지요.

여러 문제의 주체들이 촛불 광장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도 있다 하고 과감하게 자기 의제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이 문제와 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토론



“사회운동이 촛불시위의 맨 앞에 서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한다. 뺄 줄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뛰어들어 맨 앞에서 같이 물대포를 맞고 그러므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6월 10일까지와 그 이후에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항쟁이 성공하려면 이것의 정치적 수렴점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과거의 국민항쟁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있고 대안 야당이 있었죠. 예를 들어 1987년 6월항쟁 당시에는 민주당이 대안 야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수렴점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도

많은 고민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들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는데 그게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미 국민들은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명박을] 퇴진·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군중의 힘을 키워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물러나면 어떻게 하든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도 제기합니다.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물러나는 걸로. 또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점하는 대안이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타협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있죠.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수렴점을 우리가 세우고 그걸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만들어 낼 것이냐에 대해 고민, 토론, 논쟁이 예고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정리 강동훈

파업으로 이명박의 숨통을 조이자

정중남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총파업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물대포에 맞아서 고등학생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고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맨몸으로 뛰쳐나가서 경찰방패와 곤봉과 군홧발에 맞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 진격 투쟁이 폭력 경찰에게 유혈남자하게 짓밟힌 뒤 시민들은 더욱 절실하게 노동자 파업이라는 원군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적 지지가 있고, 이명박이 궁지에 몰린 지금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절호의 기회다. 파업 투쟁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숨통을 끊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물론 민주노총은 이미 이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운수노조의 운송 거부 선언, 금속노조의 산업거부와 촛불집회 참가 노력, 공무원노조의 부당 업무지시 거부 선언 등은 정말 고무적이었다. 노동조합들의 조직적 참가도 갈수록 늘고 있다. 5월 31일 청와대 앞길을 뚫는 데 앞장선 것도 금속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투쟁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반정부 투쟁으로 도약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투쟁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지금 당장 파업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아킬레스건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현장의 동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

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웹사이트에 당장 파업하자는 조합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투쟁 열기는 작지 않다.

무엇보다 교육·의료·공기업 민영화 비롯한 각종 구조조정과 물가 인상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들끓고 있다. 유가 급등을 견디다 못해 며칠 전 한 건설 노동자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분신을 시도했다. 덤프연대는 유류세 인하를 내걸고 오는 6월 16일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도 파업을 준비중이다.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反)이명박 투쟁에 결합시켜야 한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대다수 시민이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시위와 노동자들 고유의 쟁점이 결합된 파업이 조직되면 엄청난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총이 6월 10일 산업거부와 촛불집회 참가를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덤프연대 파업을 앞당기고, 금속노조와 공공연맹, 운수노조 등 가능한 곳에서 먼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주요 노조 지도부가 조직해야 한다.

기쁘게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파업 논의를 시작했고, 공공연맹은 6월 10일 하루 총회를 잡았다. 이런 불길은 더 확대돼야 하고 6월 10일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 활동가들의 자주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 활동가들은 웹사이트에 파업 호소 글을 올리고 파업 지지 연서명이나 홍보전 등을 벌이고 노조의 각종 대의기구나 회의를 통해 파업을 주장하고 안전을 발의해야 한다.

6월 항쟁에서 배우는 촛불 저항의 길

한규한

최근 수많은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 타도”,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모습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급진화한 대학생들이 6월 항쟁의 촉발자 구실을 했다. 이들은 각종 좌파 사상(대체로 스탈린주의로 해석된 맑스주의)을 받아들여 광주항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독재를 타도할 전략을 모색했다. 정권은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전두환 정권은 상당 기간 학생 좌파들을 대중과 분리해 고립시킬 수 있었지만, 계속 성공하지는 못했다. 첫 번째 전환점은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씨의 죽음이었다.

그는 보안경찰의 잔인한 고문으로 사망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철아, 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 인간자유, 해방. 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약속한다. … 이제는 끝장내리라.”(서울대 언어학과 학생들)

그러나 쇠고기 장관 고시를 강행한 이명박처럼 당시 전두환은 독재 연장 조치인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고 육사 동기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결국 민정당(한나라당의 당시 이름) 전당대회가 열리는 6월 10일 대중이 폭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학생 투쟁이 촉발한 자생성의 폭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놀라운 자발성을 현재 촛불시위의 특징으로 주목한다. 〈한겨레〉는 6월 항쟁과 다른 점으로 이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미조직 대중의 폭발적 참여와 대중의 창조성·활력은 이번 촛불시위만의 특징은 아니다. 6월 항쟁도 마찬가지였다.

거리의 전투는 거의 자생적이었다. 대부분의 좌파들이 미조직 대중의 놀라운 진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집회를 호소하기는 했지만 상징적 지도부 구실 이상을 하지는 못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기록한 어느 책의 평가처럼 “국민운동본부가 상징성과 명망으로 마련한 ‘장’에 뛰어든 민중은 그 장의 ‘실질’을 거머쥐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각성하는 한편, 잠재되었던 변혁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연일 수십만~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전투를 벌이자 경찰은 통제력을 상실했다. 경찰은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무장해제 당하기 일쑤였다. 전두환은 군대 투입과 양보 조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는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다. 대중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구실

6·29 선언은 양보인 동시에 군부의 시간 벌기용 꼼수라는 성격이 동시에 있었다. 군부는 호시탐탐 반격을 노렸다.

군부가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육군참모총장 박희도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부의 음모는 좌절됐다. 6·29 선언 열흘 뒤 이 땅에서 ‘공돌이’, ‘공순이’로 멸시받으며 숨죽여 왔던 노동계급이 깨어났다.

6월 항쟁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과 분리해 학생과 ‘중산층’의 투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인상적인 평가다. 당시 시위대열의 주축은 미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예를 들어 6월 20~21일 성남의 시위에서 연행된 사람 중 70퍼센트 이상이 노동자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조 같은 기초적인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참가는 6월 항쟁의 규모, 지속성, 전투성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구실을 했다.

거리 시위에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은 작업장에 돌아가 거대한 파업 물결을 일으켰다. 민주화를 돌이킬 수 없는 대

세로 만든, 결정적 쐼지를 박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이 4·19 혁명과 1980년 ‘서울의 봄’이 군부의 반동 쿠데타로 끝난 것과 달리 6월 항쟁이 그런 운명을 겪지 않은 결정적 차이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계급의 힘은 1987년 당시보다 훨씬 강력하다. 대규모 핵심 작업장에 민주노조로 조직되고 투쟁 속에 단련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거대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면 이명박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

자유주의 야당의 모순

군사독재 시절 김대중과 김영삼의 야당은 대중의 분노를 표출해 주는 통로 구실을 하기도 했다. 야당의 선거운동 집회는 종종 “금기의 언어가 표출된 공간이었다.”(강준만) 특히 김대중은 항쟁에 참가한 많은 노동자·민중에게 그럴듯한 대안으로 보였다.

그러나 당시 야당(통일민주당)이 대중운동과 맺는 관계는 매우 모순적이었다. 이들은 대중운동을 군부와 정치 협상을 하는 데만 이용하려 했다. 실제로 이들은 항쟁이 정점에 오른 6·26 대회를 여야 영수회담에 방해된다며 반대했고, 7월에 폭발한 노동자 대투쟁도 군부에게 빌미

6월 항쟁에 참가한 미조직 대중의 전투성은 종종 조직 좌파를 앞질렀다

를 준다며 신경질을 내며 외면했다.

야당은 6월 항쟁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지만 어이없는 권력 다툼과 분열로 노태우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 주기도 했다. 그해 말 대선에서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

오늘날 사정은 그때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더는 민주당을 진보적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 개혁을 배신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의 길을 틔게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나라당의 지지율 폭락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이상할 게 전혀 없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주의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날의 교훈

6월 항쟁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자. 먼저, 당시 학생운동이 대중적 항쟁을 촉발했듯이, 지금의 대학생들도 운동의 확대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좌파 조직들은 동맹휴업 등의 행동을 제기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참가가 6월 항쟁에서 군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이후 7~9월 대중파업으로 군부의 반동 시도에 쐼지를 박았던 힘이었다. 민주노총이 파업으로 이 운동에 참가한다면 운동은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할 것이다.

오늘날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마찬가지로 6월 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 역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연대체였다. 그러나 정치적 대안은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야당에 의존했고, 7월에 폭발한 노동자 대투쟁을 지지하기보다는 대선에서 야당 지지에 매달렸다.

반대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현재 운동의 확대를 위해 대운하·민영화·교육시장화·물가 폭등 문제 등으로 요구를 확대하며 조직 노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실현하는 데 대책회의에 소속된 조직 좌파들도 기여할 점이 많다.

7~9월 대중파업은 민주화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못 박았다

피 뿜아서 돈 받는 게 ‘황금 알바’인 세대

승주

“쉽게 돈 벌고 재미있게 일하는 대학생들의 젊은 직장 ...”

정은이 씨(가명, 서울시립대 2학년)는 6개월 동안 일한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의 라커룸 근처에 적혀 있던 ‘아웃백의 정신’ 문구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완전 막노동이었어요.” 주방에서 일했던 은이 씨는 뜨거운 스프 그릇을 잡다가 손도 많이 데었고, 은이 씨보다 오래 일한 다른 대학생은 팔뚝에 온통 화상 자국이 죽죽 그어져 있었다고 한다.

“전 경험이 없어서 하루에 한 11시간? 숙련된 분들은 아침 8시 반에 와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쉴 틈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같이 사람 엄청 많은 날은 아예 1시간도 못 쉬고요.”

지독하게 바빠서 식사 시간이 서너 시간씩 미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이 없는 때가 반가운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일이 없다 싶으면 쉬고 오라고 내보내요. 그 시간은 시급에

포함 안 되는 거죠. 5~6시간 쉬고 온 사람도 있어요. PC방 가서 계속 게임하고 오는 거예요.” 일명 ‘꺾기’다. 알바생들이 잠시 한숨 돌리는 그 시간에 주는 돈도 아까워 삼켜 버리는 것이다.

성교육, 소방교육 등은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서명했고 생리휴가도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했다. 매니저가 종종 10분씩 근무시간을 줄여 기록한 것 때문에 임금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한다.

2004년 노동부 조사에서는 롯데리아, KFC, 피자헛 등 유명 외식 업체 6개사가 알바생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년 동안 무려 21억 원을 끌려간 게 드러나기도 했다.

마루타

유명 대기업들이 이 정도니 다른 알바생들의 처지는 안 봐도 뻔하다. 최근까지 PC방 야간 알바를 했던 22살 전모 씨는 야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 3천8백 원을 받고 12시간씩 밤샘 근무를 했다. 낮밤이 뒤바뀌고 자욱한 담배 연기에 가래가 끓는 등 고생이 심해 결국 두 달 만에 그만뒀다. 그가 기억하는 주변 학생들의 PC방·편의점 알바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쳤다.

그래서 단기간에 비교적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 지원자가 몰리기도 한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 약을 투여해 효능을 비교하는, 일명 ‘마루타 알바’다. 하루 동안

12번 피를 뽑는 날을 두 번 지나고 받는 돈은 대략 30만 원.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인 셈이다. 지원자를 모집하는 한 인터넷 카페의 가입자 수는 수천 명을 헤아린다. 모집 공고가 뜨기 무섭게 지원은 마감된다. 네 번 정도 참가한 한 대학 졸업반 남학생은 “온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라면서도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황금 알바”라며 기회만 되면 또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경험’이라기엔 너무도 고달프고 가혹한 일들. 이것을 강요하는 주범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치솟는 물가와 뛰는 생활비 등이다.

공대생인 강대근 씨는 4백50만 원으로 오른 등록금 때문에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학원 강사일도 시작했다.

한 사립대 3학년인 배나운 씨(가명)는 아예 오전 수업을 듣고 밤 늦게까지 학원 강의를 하며 다음 학기 등록금을 저축한다. 학교-학원-과제의 기계 같은 일과를 소화하며 하루를 마치고 눈을 붙일 때면 서러움이 밀려 온다.

“종일 에너지를 소진한 배터리 같아요. 자는 동안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닳지 않게 잠깐 전원을 꺼 두는 거죠.” 눈을 뜨면 되풀이되는 전쟁 같은 삶, 스물여섯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닳아 간다. 이른 아침 등굣길 지하철, 김밥 속의 밥알처럼 들어 차 학교로 직장으로 향하는 또래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늘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있지?”

거리의 반란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했는데, 부모나 선생이 하라는 거는 얹전히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은 죽이는 스티프들,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 주머니에는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야? 일 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라더니, 다 어디로 간 거야?”(김영하, 소설 《퀴즈쇼》)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약 3천8백 원에 그치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조차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 노동자 평균 임금의 36.5퍼센트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얼마 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다음해 한 달 최저임금을 99만 4천8백4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알바생들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몇 달치 월급을 모조리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부모 세대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육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도 안심하고 교육받게 한다는 무상교육의 정신을 온전히 살리려면 학비 면제뿐 아니라 학업에 필요한 교재와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고된 알바와 학업의 이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상교육

2006년 그리스 학생들의 대학 사유화 반대 시위

등록금 폭탄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한 해 등록금이 노동자 가정의 한 달 치 평균 소득을 넘지 않게(한 학기 1백50만 원)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무상교

이에 필요한 거액의 재정은 삼성 이견희 같은 재벌기업주 등 소수 부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8조 원 깎아준다는 것을 안 깎아주고 여기[교육재정]에 투입하면 당장 대학등록금이 3분의 1로 떨어진다.”(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한겨레21〉 인터뷰특강)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엄청난 부를 내놓게 하려면 ‘살살 타일러서’ 되진 않을 것이다. 프랑스 대학들의 학비가 거의 무상에 가까워진 것은 1968년의 반란 이후 대학 국유화 덕분이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은 학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정부가 대학생들의 생활비도 일부 보조해 주는데,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이 같은 ‘복지국가’ 체계도 자본가들이 “혁명의 위협을 피부로 느껴”서 확립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격주간 〈다함께〉 71호 ‘박노자와의 대화’)

한편, 나라를 가리지 않고 밀려드는 신자유주의 파고는 교육을 돈벌이화 하고 학생들을 저질의 일자리로 내몰며 실날 같은 안전망마저 침식시키고 있다. 물론 이에 맞선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그리스, 칠레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거리 시위와 동맹 휴업, 대학 점거를 벌여왔고 중요한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다.

우리도 지금 거리를 뒤덮은 반란의 물결을 돌파구로 삼자.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염원하는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린다면,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실업의 위협 때문에 저질의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가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

최일봉(‘다함께’운영위원)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거의 말기적인 증상을 보이며 “임기 초 레임덕”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는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취임 1백일도 안 된 새 대통령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집권당 정치인들조차 “국가적 위기”에 대해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맞불〉은 이미 지난해 대선 결과 논평 기사에서 선거상의 변화가 반드시 사회 세력 관계의 진정한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오히려 이명박은 오래지 않아 심각한 위기에 휘말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일봉, ‘이명박’ 당선의 모순과 정권의 불확실한 앞날’〉, 〈맞불〉 70호, 2007. 12. 24.)

우리가 그렇게 전망한 근거는 세계 경제가 “747” 이명박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만일 그 때 부패 문제 따위가 불거지면 경제난과 맞물려 폭발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연구기관 KDI와 삼성경제연구소 등 재벌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올해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대로 낮춰 잡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최근 경상수지는 지난해 12월 이래 5개

월 내리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중 1~4월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6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인 37억 4천만 달러의 1.8배에 이르렀다(한국은행이 5월 30일 잠정 발표한 “4월 중 국제수지 동향”).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0억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중요한 지표이다. 1960년대 공업화 이래로 한국 경제가 주요 침체를 겪을 때마다 바로 이 지표가 적색 신호를 보냈다.

경상수지 적자를 잡는답시고 이명박 정부는 교환율(원화 약세)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기름값과 물가가 급등했다. 물가는 4.9퍼센트나 올랐는데, 이는 7년 만에 최고치이다. 이로 말미암아 서민 대중의 생활고가 더 악화했다.

물가 폭등

필자는 지난해 다함께 여름 포럼 ‘맑시즘 2007’의 폐막식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급리상승의 조건보다는 물가 상승의 조건 하에서 대중 투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의 활발한 대중 투쟁에는 물가 상승도 무시 못 할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의 부패한 본질을 “고소영”(측근 정치와 정실 인사)과 “강부자”(편법 부동산 투기 축재자 등용) 들을 새 정부 요직에 임명

하던 때 이미 드러났다. 특히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은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대중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이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것임을 대중에게 통감케 했다.

여기에 더해 대운하 강행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 비민주성을 밝히 드러냈고, 공기업 민영화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 계획이 허투박 자고 눈을 뜨면 발표되는 등 실로 정신을 차릴 수 없으리만큼 공세가 가달았다.

그리하여 경제 침체와 ‘자유’ 시장에 대한 서민 대중의 두려움이 급증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두려움이 클 것이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데다 향후 경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5월 발표된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던 것은 청소년이었던 듯하다. 과도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불안장애’를 겪는 청소년이 계속 늘고 있을 만큼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심각하다. 2006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환자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하고는, “극심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장애로 인한 증상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메디컬투데이/뉴스) 2006년 10월 24일치).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경제와 경쟁 드라이트 교육이 가하는 이중의 스트레스에 짓눌려 불안에 켜 청소년들이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펔트야콥병) 공포에 특히 민감했던 듯하다. 이런 두드러지게 절박한 공포심 때문에 정부와 우파 언론·학자 등은 처음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괴담”에 귀가 얇은 심대쯤으로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석균·박상표·우희종·송기호 등 훌륭한 지식인들이 정부와 우파 언론의 거짓말을 낱낱이 들춰내며 운동의 대의



를 옹호한 결과 이내 정부와 우파 언론은 군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밀리는 것을 탄압으로 만회하려 했다. 정부의 교육 관료는 학교 관리자들을 사주해, 아비하게도 청소년 참가자들을 협박해 집안에 가둬두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 때 이미 운동은 청년의 참가 증대로 그 구성이 바뀌기 시작했다. 청년은 “사실상 백수 3백5만 명”이라는 현실로 집약되는 대량 실업의 제물이다. 이들의 다수는 아마 2002년 말 호순·미선 사망 사건 항의 촛불시위를 지지하고, 노무현에게 투표했다가 이후 환멸을 느끼고, 지난해 말 대선에는 기권했을 것이다. 어쩌면 소수는 이명박에게 투표했을지도 모른다.

이들 청년층의 운동 참가 잠재력은 사실 2002년 말 촛불 시위와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시위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일부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약점을 경

신의 잊속을 위해 운동을 낚아채 자기 나름의 아젠다에 꿰어맞추려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만도 하다.

‘주류’와 ‘개혁 사기꾼들’의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좌파 정당들이 집권 후 스타린주의적 독재를 했거나(옛 소련과 현 북한 등), 개혁의 이름으로 급진적 변화 염원을 주류 정치권에 매어놓아 변화의 잠재력을 약화시켰기(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공산당) 때문에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맑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순수한” 기계적 자발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순전히 자발적인 듯한 운동도 초보적인 리더십과 조직은 있게 마련이다.

온라인 팸플 ‘안단테’가 처음 이명박 탄핵 운동을 발의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었던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문화제 초창기에 무대(민주노총 방송차)와 확성기, 이명박이 궁금해 한 그 많은 촛불 구입 비용 등은 저절로 마련됐던가?

이명박 정권의 공안 기관들과 〈동아일보〉 따위 우익 언론이 “배후” 어쩌고 하기 시작했을 때는 광우병 쇠고기 국민대선회의(이하 대선회)의야말로 바로 그 “배후”였다. 특히 나눔문화, 일부 네티즌 그룹들, 다함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정의 등(가나다 순)이 능동적으로 주요 조직자 구실을 자임했다.

어떤 운동이든 중립적인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지 않으며, 또 자체 내의 단선적 논리에 따라 발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운동의 국면이 바뀔 때마다 참가자들은 투쟁 방법 등을 놓고 선택을,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결만큼이나 견해 차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운동이 처음 일어날 때는 단결이 자발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단결은 계속 자발적이지 않다. 단결은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싸워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단결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단결은 결정적 물음에 부딪힌 운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각각의 물음과 대결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운동의 단결이 보장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운동은 분열로 실패하게 된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시작된 대안세계화운동이 2001년 7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카를로 줄리아니를 총격 사망케 한 경찰 폭력에 부딪혔을 때 이탈리아의 재건공산당 리콘다찌오네가 그 즉시 전 당원에게 제노바 총집결을, 또 지지 노조들에게 항의성 하루 총파업을 호소해, 다음날 30만 명



경찰에 맞아 피흘리는 여학생
-조직된 국가 폭력에 맞서려면 단결해야 한다

이 제노바 도심을 관통하는 항의 행진을 하지 않았다면 대안세계화운동은 금세 사그러들었을 것이다.

또, 두 달 뒤인 9·11 직후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이 발의해 전쟁저지연합을 통한 반전 운동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SWP가 1년여 뒤 유럽사회포럼이 열린 파렌체에서 리콘다찌오네와 노동조합들과 협력해 1백만 반전 거리 행진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면, 1천5백만 명에서 3천5백만 명 사이 규모로 다양하게 추산되는 이듬해 2·15 국제 공동 반전 행동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반전 운동의 전통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한국에서도 9·11과 2·15 사이에 다함께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주축이 돼 소규모나마 반전 운동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이라크전 개전 반대 시위와 이후 한국군 파병 반대 운동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2003년 7월 26일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박순성 교수는 “처음에 다함께가 반전 운동을 일으킨 것이 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선택의 순간

성장하는 운동이 무릇 그렇듯이 촛불 문화제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일부 온라인 그룹들의 호소로 거리 행진이 소규모로 시작됐을 때(5월 24일) 촛불 문화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광범한 대중 정서가 이미 있었다.

그러나 이 소규모 행진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체장의 무대 위 호소가 없었다면 순식간에 5천 명으로 불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운동을 실제로 주도하는 사회단체들이 당당히 그 구실을 공개적으로 자임하려 하지 않고 “순수성”과 “자발성” 담론에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사흘째 계속되던 날(5월 26일)은 중대한 고비였다. 만일 경찰 탄압과 경찰과 언론의 순수성·자발성 논리에 계속 움츠러든다면 거리 행진은 지속되지

못할지도 모를 위기였던 것이다. 그리 된다면 운동 자체가 급속히 사그라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처음에 운동을 발의했던 온라인 그룹의 일부가 대선회의를 비난하며 별도의 행진을 고집해, 운동은 분열이라는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만일 바로 이 때(5월 26~28일), 다른 아닌 바로 이 때 일부 정치단체가 과감하게 구호 선창을 하며 행진을 선도해 집회 참가자들의 전제를 거리 행진에 동참케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한때 2만~3만 명이 명동 주위를 행진하며 광범한 대중의 분노와 자신감이 존재함을 시위하지 않았다면 과연 운동이 이후 10만 명 참가 규모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맑스 이후의 가장 위대한 맑스주의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는 그가 “레닌의 현실정치”라고 부른 전략·전술의 핵심 요소가 적시성(適時性)이라고 지적했다. 뒤늦어서도 너무 일러서도 안 된다.

물론 고시 강행으로 분노가 매우 커졌겠지만, 마녀사냥과 국가 탄압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 없이 단지 분노만으로는 거대한 대중 운동이 일어나기 힘들다. 5월 26일보다 너무 늦지 않은 때, 마녀사냥과 국가 탄압을 감내할 태세가 돼 있는 소수가 과단성 있게, 단호하게, 용감하게 대중의 바람을 흡수하지 않았다면 대중의 에너지는 “피스톤 실린더 안에 들어가지 않는 증기처럼 산 자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다.(트로츠키)

물론 ‘원동력은 피스톤이나 실린더가 아니고 증기에게 있듯이 운동의 원동력은 대중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용의주도한 계획·조직·리더십과 대중의 자발성을 서로 대립시키지 말고 조화시키는 것이다.

엥겔스는 군사 전략·전술의 중요한 발전은 모두 전투의 압박 속에서 분투하는 전선의 사병들이 고안해 냈다면서, 훌륭한 장교라면 사병들이 고안한 것을 취하고 전군(全軍)에 보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자는 그 자신이 교육받아야 한다.”(맑스의 〈포이어바하에 대한 테제들〉 가운데 셋째 테제 중에서)

피억압자들의 해방은 분명 그들 자신의 행위이다. 그들 가운데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의식적인 소수는 다수를 대항하지 않으면서 다수를 돕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일방적이고 하향식이지 않은 쌍방향성, 대화식이다.

바로 지금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 즉 지도·지도부·지도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해롭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맑스·엥겔스 시대

» 8면으로 이어짐



거리 홍보전을 하는 다함께 회원들과 촛불시위를 준비하는 광우병국민대선회의 자원 봉사자들
-촛불시위 성정에는 이런 조직된 단체의 구실이 중요했다



》7면에서 이어짐

의 ана키스트들이 편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됐던 것이다.

게다가 역사는 1960~70년대 미국의 ‘민주사회지지학생들’이나 이탈리아의 ‘계속투쟁’(로타 콘티누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자발성주의자들이 흔히 비민주적·권위적 조직 구조로 180도 전환하곤 한다는 점도 보여 주었다.

이번 촛불 시위에서도 자발성주의자들은 그렇게 변모할 조짐을 자주 보여 주었다. 거리 행진 대열이 경찰의 봉쇄에 직면한 데다 대열 규모도 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같이 토론해 보자는 대책회의 활동가나 방송차의 마이크를 뺏는 따위의 행동이 그것이다. 뒤로 돌아서 다시 거리 행진을 하자든지 아니면 경찰에 연행되자든지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 있으면 시위대 전체가 모인 그 자리에서 하면 될 것인데 말이다.

자발성주의자들의 정치적 성격이 모호한 것은 더 큰 문제였다. 모든 언론이 그 나름의 목적과 의도에서 자발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 자발성론자가 될 수 있고, 또 자발성론자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자발성주의자

그래서 우익이든, “구관이 명관”이라며 김대중이나 노무현에게 향수를 느끼며 민주당이나 문국현을 지지하는 서글픈 중년 남성 멋글 패인이든, 심지어 경찰에 고용된 “알바”든 누구든 다함께를 질시하는 종파주의자와 함께 한 목소리로 다함께를 음해하고 중상 모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온갖 방향으로부터의 다함께 비방 캠페인을 우리가 현 대중 운동 속에서 하는 능동적 구실에 대한 찬사로 여긴다. 정치에서는 아무의 공공연한 비판과 반대도 받지 않는 3류가 되기보다는 온갖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일류가 되는 게 더 낫다.

또한, 우리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가 진정한 투쟁의 장임을 잘 알고 있기에 온라인상의 낭비적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현실의 정치 투쟁에 몰입했다.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것은 주요 대책회의 간부들이 거리 행진을 계획하기 시작할 때 이 가상 세계의 소동과 한줌밖에



우리의 투쟁은 이명박을 박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 되는 일부 자발성주의자들의 비민주적 항의에 휘둘려 한동안 갈팡질팡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혼란스런 태도는 5월 31일 조직 좌파가 대부분 참가한 10만 명의 집회로 간단히 반증됐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교에서는 자발성주의자들과 우파 대학생들이 총투표를 거치지 않은 그 어떤 결정도 무효라는 초(지나친) 민주주의 입장을 표방하면서,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동맹휴업 호소를 저지하려고 협공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이명박의 비민주적·억압적·착취적 정책 패키지를 사회 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특별히 대학생들만 그렇지 않을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으로 표상되는 온갖 친재벌 서민말살 정책 꾸러미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물리칠 수는 없다. 역사상 피억압자의 패배는 모두 그 패인이 각개격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반신자유주의 운동가들은 운동의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쟁점을 넘어 대운하, 경쟁 몰이 교육, 보건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기름값 상승, 물가 상승 등등의 쟁점으로

확대해야 한다.

앞서 필자가 강조했듯이 이 운동이 단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근처에 경제난·생활난에 대한 불만,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등이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바야흐로 분출하기 일보직전인 것이다.

다 함께

이것이 현실화할 것인가는 비종파적인 좌파가 얼마나 현장 — 산업 현장만이 아닌 캠퍼스 현장, 지역사회 현장, 거리 현장 — 에서 정열적으로 주장하고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리로 나오면 시위에 참가한 개별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들이 크게 고무돼 직장에 돌아가 동료들에게 행동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꼭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련 요구를 중심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 그 요구가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그들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위해 싸우면 된다. 그 요구가 자기 직장에 국한한 요구인지 아니면 산업이나 계급 전체에 해당하는 요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싸운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막스적 의미의 정치 투쟁이다. 1987년 7~9월 산업 노동자 쟁의는 한 뭉치의 연쇄적 경제 파업들로 전개됐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열사가 경찰 탄압으로 숨진 8월 중순 때쯤은 전국의 수천 작업장이 동시에 파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권력 문제가 제기될 뻔하던 때였다.

혹심한 탄압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반신자유주의 투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자율적으로 “각자 알아서” 싸우지 말고 다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찰력을 전국 각지에 분산시켜 운동이 각개격파를 모면할 수 있다.

그리고 투쟁의 진정한 과녁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야 한다. <CSI 라스베가스>의 한 에피소드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겠다. “이 연쇄살인마는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게요.” 이명박도 그가 지도자 노릇을 하는 동안에는 재벌천국·서민지옥 정책 추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설사 6월 노동자 투쟁이 말 그대로 계급적인 투쟁이 되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7월 초 세계 지배자들의 우두머리 조지 부시의 방한 반대 운동이 크게 건설될 수 있다. 물론 부시가 북미관계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시늉을 해 운동 내 자주파 지도자들을 헛갈리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럼에도 남한 피억압민 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그의 방한을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록 이명박을 권좌에 남겨두더라도 이렇게 상반기 투쟁이 활력 있게 전개된다면 그 성과 위에 진정한 진보 정치연합체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포괄적·상시적 공동전선 말이다. 지금 서민 대중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명박 시장주의 드라이브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에 대해 대안과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진정한 진보, 즉 착취·억압·천대·부당함과 억울함 등이 완화된, 살 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런 희망을 대중이 “자발적으로” 가지려면 온갖 언론의 자발성·순수성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응답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략으로 1백만 명 이상 학살, 한미FTA 체결 당사자,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한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 이명박을 만나러 온다.

부시!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부시 방한 항의 집회

일시: 7월 5일(토) 시간·장소: 추후 공지

주최: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유럽

반전 ·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전진

크리스 뱀버리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유럽 급진좌파에게 축하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5월 30일 파리에서 프랑스의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이 조직한 모임에 무려 1천 명이 참가했다.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연사에 이어 LCR의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연단에 올라섰다. 브장스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5퍼센트를 득표했다.

브장스노는 좌파가 월수입 2천 유로 [약 3백만 원] 미만인 모든 사람 — 프랑스 인구의 85퍼센트 — 을 위해 최저 임금 1천2백80유로[약 2백만 원]를 3백 유로[약 45만 원] 올리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보조금과 감세 정책”을 중단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 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임금이 물가 상승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장스노는 신자유주의와 니콜라 사르코지 우익 정부를 거리낌 없이 공격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5월 초 브장스노는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3시간 동안 그가 보인 태도로 광범한 존경을 받았다. 심지어 우익 일간지 <르 피가로>조차 이렇게 말했다. “속지 말자. 젊은 겉모습과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다.”

LCR은 새로운 반자본주의 정당 건설을 호소하고 주도하고 있다. LCR은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 · 일자리 · 파업권 공격에 맞서 계속 싸우는 사람들과 3년 전 유럽헌법 통과를 부결시킨 기층 캠페인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단결시키려고 한다.



5월 30일 68반란 40주년 유럽 급진좌파 토론회, 가운데가 올리비에 브장스노

한때 강력했던 프랑스 공산당이 계속 쇠퇴하고 사회당이 자유시장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왼쪽에 큰 공백이 생겼다. 덕분에 브장스노가 내년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당선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공동 행동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반자본주의 정당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미 8천명 — 현재 LCR 회원의 거의 세 배다. LCR은 유럽헌법 국민투표 이후 갑절로 성장했다 — 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 서명을 했다.

금요일 모임에 뒤이어 이틀 동안 16개 유럽 국가들의 급진좌파 정당들이 모인

회의가 열려 유럽 수준의 [선거] 연합을 결성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LCR과 이탈리아의 시니스트라 크리티카[이탈리아 제4인터내셔널 정당]는 2008년 유럽의회 선거를 위해 전 유럽적 [선거] 연합을 결성하자고 주장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아직 확실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좌파 내 다른 단체들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선거 연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일단 급진좌파 모임에 참가한 단체들은 일련의 공동 행동을 벌이기로 합의했고 먼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독일 쾰에서 열릴 나토 창립 60주년 ‘축하’ 정상회담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난 주말 독일에서는 나토의 아프

가니스탄 점령 반대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것은 스트라스부르-쾰 정상회담 반대 시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독일 토론회에서 폴란드 노동당 대표들은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에서 진행중인 미국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 반대 행동에 관해 보고했다.

성장

파리의 급진좌파 회의는 전쟁과 기후 변화를 중요한 행동 과제로 삼았다.

이탈리아에서 인종차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몇몇 나라 급진좌파 대표들은 우익이 이주민 쟁점을 악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로마노 프로디 정부 같은 중도좌파 정부의 배신 — 복지에 돈을 쓰기보다 긴축 재정과 균형 예산에 더 우위를 뒀다 — 덕분에 우익이 이주민들을 속죄양 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연히 중도좌파 정당들은 외국인혐오증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반면 그리스, 독일, 프랑스에 대한 보고들은 급진좌파가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반(反)자유시장 투쟁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급진좌파가 반전 · 반자본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고 좌파 내 다른 세력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독일 급진좌파 정당 ‘디 링케’의 사례가 매우 중요하게 논의됐다.

올 가을에 열릴 또 다른 급진좌파 회의에서도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 파리에 모인 사람들은 범유럽적 반자본주의 좌파 건설에 필요한 공통 강령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놓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라크를 공식 식민지로 만들려는 부시

조지 부시는 이제 이라크를 ‘민주주의 국가’로 취급하기를 중단했다.

부시는 이라크 정부와 신 ‘안보 협정’을 맺으려 한다. 이 협정은 이라크의 주권 박탈을 영구화하고 미국 정부가 이라크를 근거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것이 ‘주둔군 지위 협정’으로 알려진 이 비밀 협정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라크 의회와 이라크의 친미 동맹들조차 이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있다.

지난주에 이 협정의 내용이 아랍 신문을 통해 폭로되자 이라크인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부시는 터키, 이란, 시리아 인접 지역을 포함해 약 4백여 곳에 영구적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한 친미 쿠르드족 지도자는 이 기지들이 “15~20년 동안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정에는 미국이 이라크 영토를 통해 “제3국들”을 침략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이라크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대(對)이란 전쟁을 향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이라크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것은 모든 미군 · 미국 시민 · 용병 들(이른바 ‘민간 계약자들’)에게 치외법권의 특혜를 주는 조항이다. 이것은 지난 60여 년간 주한미군이 마음껏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방패막이가 돼 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떠올리게 한다.

이 조항 덕분에 점령군들은 처벌이나 이라크 법을 두려워 않고 마음대로 이라크인들에게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아무 이라크인들이나 체포 · 구금 · 살인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군 점령 때문에 1백만 명 이상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감금돼 있다.

또, 협정에는 재건 과정에서 체결된 모든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 경제를 독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예전에 미국 정부는 이라크인 부역자들을 만들기 위해 일부 재건 계약들을 이

라크 기업들에게 줬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점령 반대 저항을 막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부를 미국이 혼자 독점하기를 바란다.

이라크 침략 전에 부시 정부는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하고 후세인 정부의 억압을 종식시켜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거듭 말했지만, 더는 그런 거짓말을 지키는 척할 필요도 못 느낀다.

“혐오스런 계획”

그러나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부시 정부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이 협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라크 총리 누리 알말라키는 7월 말 이전에 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점령군에 저항하는 세 번의 대규모 항쟁을 주도했던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이 협정을 “혐오스런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주로 수니파 저항 세력의 대변자 구실을

하는 무슬림학자연합은 이 협정으로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배”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부통령이자 점령 지지자인 타리크 알하시미조차 미국 정부가 “금지선”을 넘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시아파 최고위 성직자인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니는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시스타니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이라크가 그런 협정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친미 민병대 바드르 여단의 지도자인 압둘 아지즈 알하킴마저 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저항에 직면해 주이라크 미국 대사 라이언 쿠키는 만약 이라크 폭두각시 정부가 ‘주둔군 지위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라크 정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시의 이라크 점령과 학살을 중단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기에 관한 부시 정부의 안하무인적 방침에 분노하는 한국 시민들은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인들에 연대해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대규모 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0교시와 우열반 등
갈수록 막나가는 입시지옥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당당히 목소리 내는
청소년 여러분께
몇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읽은 후의 소감을
글로 보내 주시면 선정해
〈맞불〉에 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 : letter@counterfire.or.kr



〈맞불〉편집부가

청소년에게 추천하는 책

가장 훌륭하고 재밌고 솔직하게 성과 사랑에 대해 말하는 책
《섹스북》, 권터 아멘트, 박영출출판사

2백27일 동안 바다를 표류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
《파이 이야기》, 안 마텔, 작가정신

복잡한 세계사, 한눈에 단순명쾌하게, 옛날이야기처럼 편안하게
《공브리치 세계사 1, 2》, 에른스트 공브리치, 자작나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고발과 도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야기》, 베벌리 나이더, 생각과느낌

단편 만화집 - 어른이 된 돌리가 보여 주는 냉혹한 현실
《공룡 돌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최규석, 길찾기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병원노동자 포럼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이명박 정부의 앞날
연사: 박건희(수이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김어진(다함께 노동조합팀 활동가)
일시: 6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토즈 대학로점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문의: 02-2271-2395

대학 맑스주의 포럼

‘68혁명’ 40주년: 세계를 뒤흔든 저항과 빈란의 해
연사: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6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고려대 문과대 서관 224호
문의: 016-546-5560

※ 추가된 포럼은 ‘다함께’ 웹사이트

(<http://www.alltogethe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포럼 안내 및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으로

연락 주세요.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이기

어느 조용한 날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

미국의 침략 전쟁, 폭격에 떨어가는 심장 소리들

뜨거운 지구, 가난한 사람들 삶터가 물에 잠기는 소리

물·전기·가스·철도 사유화, 대재앙으로 가는 열차 소리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건

광우병 쇠고기와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무한경쟁의 입시지옥과 비싼 등록금 고지서

이윤보다 사람이

경쟁보다 연대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함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 흠어진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
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맞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
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
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
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웹사이트 : <http://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36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단체와 개인을 환영해야

저는 촛불시위에 참가하며 사람들의 자발성에 놀라움과 환희를 느끼고 있습니다.

5월 24일 처음 광화문으로 행진을 했을 때 저와 같이 했던 동생들은 “언니가 구호 좀 외쳐” 하며 저를 타박했는데, 구호 선창이 쑥스러웠던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요즘 다함께 소속 회원이 대열 앞에서 구호를 선창하는 것이 대중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의견은 단체의 적극적 참여 자체가 대중의 자발성을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듯 보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속한 공간이 다르지만 ‘협상 무효 고시 철회’, ‘취박이 박멸’은 함께 외쳐야 합니다.

특정 단체를 배격하는 방식으로는 조중동의 마녀사냥에 맞서 촛불시위를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태욱



힘을 응축시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맞불>을 구독하고 있는 그야말로 소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우선 매일 힘든 투쟁을 벌여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특이하게도 ‘자발성’에 과도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해서 “그 누구 · 어떤 단체의 선동과 지도도 일반

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자발성엔 동의하나, 과연 운동의 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이 주장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적들을 괴멸하거나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에서 수천수만 집회 참가자들의 힘을 응축시켜 힘차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부 · 대표체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지도 또

한 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임은 자명합니다.

자발성 운운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수천 개 단체들의 집합체인 대책회의가 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기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다함께가 더 큰 노력을 해 주기를 더불어 바랍니다.

김유중

‘다함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6월 1일 아침, 집회가 끝나고 청계광장 한켠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귀에는 아직도 “이명박은 물러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친구 두 명과 함께했습니다. 두 친구는 춘천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우리는 시청광장에 말 그대로 잠깐 들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차표를 취소하고 집회에 남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기 전날 대책회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보고 다함께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함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루머에 불과하며 이 집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집회 막바지 새벽 5시쯤 경복궁 앞 도로에서 대치한 국면에 다함께 깃발을 향해 “깃발을 내려라” 하고 소리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다함께가 새벽 동안 집회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

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 “대열을 분열시키지 마라”,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막지 마라”, “다함께는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 하고 외치는 다수의 사람들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다함께에 대한 공격들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집회 현장의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표신우

우리 모두 선동가가 되자!

지난 5월 31일 셀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시청 광장에 모여 집회를 하고 행진했다.

나는 주로 지나가는 차들에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내가 든 유인물 수백 장이 30분도 채 안 돼 모두 동났다. 어떤 버스 승객들은 유인물을 뭉텅이로 받아서 나눠 읽기도 했다.

어느 시위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감동적인 날이었다.

그런데 1일 새벽에 2백 30여 명의 시위대가 연행되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한다. 일부는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이명박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들, 후배들과 잡담을 하면서도 이 어이없는 소식을 나눈다. 그리고 자신들도 내일 시위는 가겠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집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시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사분은 내일도 꼭 시위에 가라고 당부하셨다. 이제 우리 모두가 모두를 선동하고 있다. 모두가 주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단체를 선동하자. 온 거리가 맞잡은 손과 깃발, 아름다운 불빛으로 일렁이도록 하자.

박태현



소식/보고

2008년 6월 9일(월)까지 지역과 대학, 작업장의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letter@counterfire.or.kr

“싸우고 승리해 일터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나는 6월 1일자로 복직됐다.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판결이 이행된 결과다.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강제로 쫓겨난 일터로 싸워 돌아가는 것은 큰 승리다.

그동안 함께 싸워 준 공공노조와 민주노동당, 정규직 동료들은 “역시 정의는 이긴다”며 기뻐해 줬다.

그러나 공단 측은 지난 반년간 겪은 고통스런 해고 생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탈당하지 않는 한 별정직(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는 동료들과 등 돌리고 앉아야 하는 자리에 배치받았고, 혼자 ‘제도개선 보고서’를 써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팀 관리자는 “공단 나쁘다고 써붙여 놓고 시위를 해대더니, 그렇게 나쁜 공단에 왜 들어오냐?”

법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하고 적반하장격인 비난까지 퍼부어댔다.

그러나 몇몇 정규직 동료들은 관리자의 처사에 어이없어 하며 “요즘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힘들어도 꾹꾹히 버텨라”, “(내놓고)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오며 가며 격려해 주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 잠깐씩 눈물이 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에서는 ‘별정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홍희덕 국회의원이 공단 이사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나는 공공노조의 도움을 받아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할 것이다. 또, 함께 해고됐지만 아직 복직되지 못한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팻말 시위도 계속할 것이다.

성향아

카캐리어 노동자들의 파업결의

5월 31일 현대·기아차 카캐리어(완성차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노동자들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에 돌입하면 5백여 대의 운송트레일러가 모두 멈추는 것이다.

완성차 운송트레일러가 멈추면 현대·기아차의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유가 폭등으로 메이저 정유회사들이 영업 이익 1조 원 클럽에 ‘등극’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동안 운송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대차 카캐리어 화물 노동자들의 울산-신갈, 화성 코스의 운송료는 55만 원인데, 기름값

만 50만 원이고 왕복 도로비가 최하 5만 원이다.

차량수리비 · 보험료 · 밥값 몽땅 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운송료를 대폭 인상해서, 달릴수록 더 많이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는 게 카캐리어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완성차 생산라인을 중단시킬 운송트레일러 노동자들의 파업은 현대·기아차 노조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도 이 파업을 지지하고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에 반대해 파업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여진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는 이명박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자

장호중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 폭등과 곡물 가격 인상 속에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다.

돼지고기, 쌀, 상추 등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제품과 학원비, 치과진료비, 의료, 월세, 전세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자그마한 적금 통장마저 깨도록 만든 물가 폭등은 서민 생활 전체를 팍팍하게 조여 오고 있다.

국제 석유·곡물 가격 인상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성장 정책도 물가 폭등의 주범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백 일 동안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는데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서민 경제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책이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가뜩이나 크게 오른 국제 원자재·식품 가격이 국내로 들어올 때 더욱 올랐다.

"수출이 늘어도 적자"라지만 SK에너지, S-Oil 등 거대 정유사들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사분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C제일제당이 당기 순이익 5백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식품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도 곧바로 상품 가격을 인상해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에게는 가격을 통제할 권리도, 임금을 맘대로 올릴 권리도 없다.

이처럼 뻔한 결과를 눈앞에 두고도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어차피] 물가가 하락해도 소비 촉진은 어렵다"며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였고 물가 폭등 우려에 대해서도 "일 자리를 잃는 게 좋으나,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게 좋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물가가 5퍼센트나 오르는 동안 일자리 증가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52개 'MB품목'이 되려 전체 물가 인상을 "이끌고 있는" 판이다.



미친 물가를 잡기 위한 과제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공격하려 한다. 당장 올 하반기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며 특히 "가정용 전기료" 등을 올려 기업에 부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말이지 노동자·서민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비틀어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나 유류 보조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서자 버스 회

사 사장들도 기세등등해져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당장 버스 운영을 줄이거나 아예 노선을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 민영화에만 골몰하고 기업주·부자를 위해 종부세·법인세를 깎아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 살림살이를 지켜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정책을 거꾸로 돌려놓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미 화물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유류보조금 삭감,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에 나

서는 등 투쟁의 첫 발을 내디뎠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민영화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교통,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종부세·법인세를 깎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주·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 물가 폭등에 걸맞게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

지금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 장악한 투쟁에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투쟁이 결합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 물가 폭등과 투쟁

이명박 정부가 재벌을 위해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 미국 부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려고 전 세계인을 고통으로 내몰았다.

부시도 이명박처럼 자국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고 달러 약세 정책을 지속했고 중동에서 전쟁을 벌여 석유 수급 불안상을 키웠다. 그 결과 국제 유가가 오르고, 투기 자본이 달러를 팔아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를 사들이는 등 악순환이

생기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격렬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5월 27일에는 영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 인하를 요구하며 런던 도심에 점거하는 투쟁을 벌였고 프랑스 화물 노동자들은 파리 인근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행 투쟁'을 벌였다. 불가리아에서는 화물,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수도인 소피아 시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1998년 유가 인상에 반발해 시작한 시위로 수하르토 독재 정권을 몰아낸 인도네시아 민중은 10년 만에 찾아온 고유가 폭탄에 맞서 지난달에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몇몇 나라 정부들은 이미 노동자들의 투쟁에 놀라 보조금을 늘리고 유류세를 낮추는 등 양보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나라 정부도 강력한 투쟁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복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맑 · 시 · 즘 · 2 · 0 · 0 · 8

은 저항운동의 토론회 광장이자 축제입니다.

50여 개의 강연과 영화 상영 · 콘서트 · 사진전 · 시 낭송 등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물 · 전기 · 가스 민영화 등을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장입니다.

맑시즘2008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린 토론과 감동의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항운동의 축제

맑 · 시 · 즘 · 2 · 0 · 0 · 8

주요 연사

조너선 닐 미국 출신 반자본주의 운동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책갈피) 저자

이언 버철 68 빈민 참가자,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프랑스학 교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재선 국회의원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이강택 'KBS 스페셜' PD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연출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 《자본론》(비봉) 번역 정성진 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이슬람》(청아) 저자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강양구 《프러시안》 과학 · 환경 담당 기자

일시_ 8월 14일(목) ~ 17일(일)

장소_ 고려대학교

주최_ 다함께

참가문의_ 02-2271-2395,

atgmail@nate.com, http://www.alltogether.or.kr

〈맞불〉과 '다함께'를 후원해 주세요

'다함께'는 어떠한 정부 · 기업 지원도 받지 않고 지지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다함께는 이명박 반대 시위에서 운동의 진전을 위해 호외와 손팻말을 대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진실과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 후원계좌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694701-01-227958
하나은행 197-910005-87207
우리은행 1002-130-549338
신한은행 308-12-498840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에서 핸드폰결제 · CMS신청도 가능합니다.